# 노는 물이 다르다

## (롬13:1~7)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노는 물이 다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제가 산책을 자주 합니다.
저희 집에서 한 40분 정도 걸어가게 되면 바닷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닷가에 거의 다 오게 되면 바다가 보이는 지점에서 남대천이라고 하는 강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강을 다리로 넘어가야 바닷가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바닷가로 나가기 위해서 다리를 건널 때면, 교각의 난간을 의지해서 서서 꼭 확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리 위가 제법 높은데, 그 높은 곳에서 아래로 강을 내려다보면서 강에서 물고기가 노는지를 확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어귀에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그곳에서 생활하수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오물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오물을 처리하는 시간에 맞닥뜨리면 그 주변에서 심한 악취가 나기도 해요.
그렇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들이, 다리가 놓인 밑으로 보면, 수로를 통해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색깔이 둔탁해요.
완전히 처리가 되기는 하겠지만 둔탁한 색의 물이 강어귀로 흘러나와 곧바로 바다로 진입하니까, 늘 걱정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정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갈색의 물이 바다로 들어가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봤더니 그 물이 나오는 곳에 물고기들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차를 타고 3, 40분쯤 가면 오대산 소금강이 나오는데, 그런데 언젠가 한번 그 소금강 계곡을 등산을 했습니다, 한 시간 가량 올라갔다가 한 시간 가량 내려왔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계곡에 물이 흐르는데 그 계곡의 물에도 고기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봅니다.
소금강의 그 아름다운 풍경 속 맑고 맑은 물에서 사는 고기가 있고,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색깔이 갈색인 그런 물이 나오는 곳에서 노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고기이지만 노는 물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는 겁니까?
신앙을 발휘하는 거예요, 신앙을 발휘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교인으로써 교적에만 올라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보좌가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인 현실로 느껴지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 발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천지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친밀감 속에서 또 나의 제1 현실이 되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재벌의 아들들이 아들 의식으로 살아갈 때처럼 천지를 지은 주인이신 그분의 아들 된 의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이지요.
이렇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나라를 제1현실로 만들 수 없는 신앙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교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물에서 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른 물에서 놀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조차도 아빠와 엄마가 다른 물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고 아빠가 신앙이 없다면 이 둘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물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아빠는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둔탁한 물이 나오는 곳에서 놀고 있다고 한다면, 엄마는 소금강 계곡의 맑은 물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신앙인으로 신앙이 발휘되고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노는 물이 달라야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봅니다.

오늘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드러난 대로의 말의 뜻 자체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까 다 권세에 복종을 하라는 얘기고, 그 얘기의 부연 설명이 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본문의 틀을 가지고 역사 특별히,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도무지 매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틀에 맞아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언뜻 언뜻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사회에 권세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사회의 당국자들에게 순종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왕 질문이 나온 김에 미리 질문해보자면, 그러면 당국을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권력집단을 창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기존의 권력과 권세에 맞서서 새로운 권력집단을 창출하지도 않으셨지만, 오늘 사도바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히틀러의 나치정권에 저항한 독일의 고백교회와 그 고백교회의 일원으로서 나치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한 본회퍼 목사님 같은 분의 입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나치정권이 어쨌든 독일이라는 국가의 권세를 잡고 있는 정권이었습니다.
또, 성경에서 엘리야 때에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온 나라에 편만하게 가장 강력하고 우선적으로 우상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우상정책은 국가의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국가정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박 근혜 대통령의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을 실행해도 그건 국가의 정책인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저항합니다, 그리고 7천 명이 오직 여호와하나님 신앙을 고수하면서 이 국가정책에 반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 자신도, 또한 다른 사도들도 당시 유대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자기들에 대한 결정을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주어져 있었던 대제사장에게 절대적으로 불복종 합니다.
제일 뚜렷한 어려움은 로마정부에 대해서 복종했다면 초대교회의 순교란 있을 수가 없고, 로마시대 때의 그 믿음이란 그 자체로서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국가에 대한 우리 신앙인의 입장을 그냥 복종이라는 관계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자 이면에 이러한 글, 갑자기 국가권력에 대한 신앙인의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사도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한 의도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의 의도는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천국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 때에, 이 지상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신앙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국가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문자적으로 우리들에게서 지켜져야 될 행위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인의 입장은 어때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얘기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이 올바르게 발휘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지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권력다툼에 대한 참여의식이 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하면 권력에의 의지가 제로 상태가 된 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권력의 의지가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국가권력에 대한 복종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말하는 국가는 당시의 로마의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민족의 당국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국가의 개념, 가장 보편적인 국가의 개념, 개념상의 국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상의 국가는 어떤 국가입니까?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질서를 유지해가는 것이 지금 사도바울이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국가권력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저항하게 될 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 하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지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지향하여 얻으려고 할 것도 아니고 그 권력다툼에 끼어들 일도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이유는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노는 물이 다르다'는 얘기를 예수님의 공생애 모습을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거예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관복음서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일제 강점기로 옮겨오는 거예요, 마치 일제 강점기의 한국 사람인 것처럼.

그럴 때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 일본의 앞잡이 모습은 아닐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분명한 또 하나의 모습은 독립투사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게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신 것도 아니지만 유대민족의 입장에서 유대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독립투사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식민지하의 조국도 아니고, 종주국인 로마도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조국의 독립도 로마의 편승도 예수님의 관심은 아니었다는 얘깁니다.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관심은 그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몰두되어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 모든 유대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면서, 권력투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권력투쟁이라고 해서 반드시 눈에 보이는 봉기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저항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음으로 저항하는 것 자체가 권력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노는 물이 다르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든 종주국 로마인의 입장이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에 있든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들리는 수많은 대상들이 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첫 번째 현실로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 이게 하나님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정의가 지배하는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려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노는 물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근거해 말하자면, 모든 이 지상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을 하는 바울사도의 의도 속에는, 참 신앙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1현실이 돼서 마음이 지상을 떠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상의 권력다툼에 참여하지 않는다, 신앙이 활성화 된 상태에서는 권력에의 의지가 제로인 상태가 된다.
그 상태에서 나라를 한번 살펴봅니다.
나라에서 일어나는 정책이라든지 그것이 잘됐든 잘못 됐든 다 따라가게 돼있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조세건 공세건 다~ 세금을 내게 돼있습니다.

마음이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역사적으로 나타난 국가 차원에 대한 신앙인들의 저항이나 로마시대의 순교는 뭐냐?
그것은 권력에의 의지를 갖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투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당국에 저항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우는 것처럼 그런 권력투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으로써 로마권력에 편승하고 분봉왕 헤롯이 로마 권력에 편승해서 자기의 권세 영역을 만들어낸 것처럼 권력투쟁에 참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국자들에 의해서 잘못 이해되고 잘못 가르쳐지고 잘못 실행되고 있음에 대해 저항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저항한 것도 그릇된 왕에게서 권력을 빼앗아서 이 나라를 정의가 흐르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권력투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신앙에 훼손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저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자 니체는 권력에의 의지를 자기의 철학의 기초로 삼고 있고, 권력이라는 말 자체를 인간의 삶 자체로 봅니다.
삶의 본질이 권력을 향하는 의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권력에의 의지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이 권력이 왜 필요합니까? 지배를 위해 필요해요.
지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편적인 국가개념을 상정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이지만, 사실 이 권력욕 지배욕은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친구들끼리 모여도 이 지배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배가 뭐예요? 내 의견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부모의 의견이 자식에게 관철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지배욕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진짜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잘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를 따집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자식을 혼내줍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그래서 청교도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하면,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들이대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 맞아라!' 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너 내말 안 들어?' 이 마음이에요.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지배욕, 며느리의 시어머니에 대한 저항, '이제 결혼해서 주부가 되

었으니까 이 집 살림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야지, 왜 아직까지 시어머니가 쥐고 있느냐?' 다 지배욕입니다.

내 의견과 내 소원과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 아직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친구와 모일 때든, 친구와 모일 때도 그래요, 꼭 자기 의견대로 식사를 할 때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모든 친구들에게 강요해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강요해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지배욕이 신앙과는 무관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를 들어 다윗왕은 백성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왕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유다백성을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지 자기가 백성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장의 자리에 있어도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직원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위해서 하고 싶으신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 자식 앞에 있어도 내가 자식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자식을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의 입장에 서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 한 사람도 내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지배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인이고, 지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신앙인입니다.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따르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직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만을 바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나라에 대한 소원이고, 노는 물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차원은 그렇게 나의 신앙을 건드리지 않는 한, 또 내가 신앙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아무리 부당해 보이는 조세법이라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 마음에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나라가 한번 내게 제1현실이 돼보면, 사도바울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라에서 하는 모든 정책이 아무리 불합리해 보이고, 야당과 여당이 만날 자기들끼리 싸우지만, 하늘나라가 첫 번째 현실이 되는 게 내 관심사인 이런 상태에서는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야당도 여당도 아니고, 정책이 결정되면 다 따라 주는 겁니다, 권력투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노는 물이 달라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참여되어야 할 놀아야 될 물이 다름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권력 투쟁의 현장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